

#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개연적 몽상, 평화

서양 근대철학의 평화론

김봉규 | 서강대 철학과 강사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서양인은 전쟁의 필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트레히트 평화협정에 참여한 상 피에르의 평화계획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평화사상은 칸트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진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통해 지상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이념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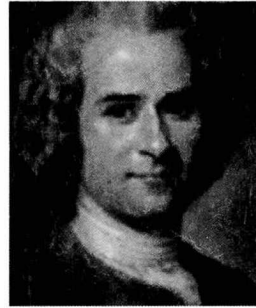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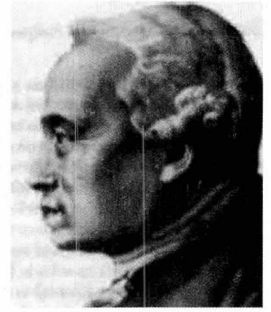
WTC 테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미묘한 한반도 남북 관계... 요즘 다시금 평화와 전쟁이 이슈다.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이후 어쩌면 인류가 또 다시 커다란 전쟁에 휩싸일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었을 법도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이젠 아닌 것 같다.

인류 역사상 전쟁 없이 평화로웠던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과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오긴 올 것인가? 인간이면 누구나 평화롭게 살자는 데 싫다 할 사람이 없을 테니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한, 이미 약 3천년 가까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전쟁이 사라지기는커녕 이젠 국경 없는 전쟁까지 생긴 마당이니 아무래도 미래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단테, 에라스무스, 프랑크로 평화사상 이어져** 이상하다. 모두가 진정 평화를 원 하는데 그 평화는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프로이트의 금지된 욕망처럼 평화를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부엔 파괴와 공격에 대한 본능적 욕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전쟁은 필연인가? 우리는 아직 홉스가 말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 (bellum omnium contra omnes) 상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평화에 대한 바람과 억제할 수 없는 전쟁의 욕구 사이의 갈등은 서양사 안에 항상 내재된 문제다. 이제 근대 이후 그들이 어떤 갈등을 겪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자.

중세의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기독교적 평화론이 그 효력을 상실



인간사회의 보편적 평화가 보장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한 최초의 근대철학자는 칸트였다. 사진은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단테, 칸트, 피에르, 루소.

한 후 근대 주권국가의 군주들은 평화를 위해 국가간 정치적 기구 창설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이런 사유는 단테와 에라스무스 그리고 프랑크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의 전까지 마키아벨리적 군주들의 독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국제법이 노력한 것이라곤 전쟁을 멈추게 하거나 인본주의적 전쟁을 향한 외침뿐, 근본적으로 주권의 수호를 위한 전쟁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는 필연적 동반자로 인정됐던 것이다.

##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야 전쟁에 의문 제기해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서양인은 전쟁의 필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그 최초는

우트레히트 평화협정에 프랑스 대표로 참가했던 상 피에르(Saint-Pierre)가 1713년 제창한 평화계획안이다. 그 속에는 이미 군비제한과 경제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루소는 피에르의 국가연합을 통한 평화유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그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민족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지적한다. 프랑크혁명도 피에르의 이념을 깔고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평화를 위한 정치적 변화를 외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인간 사회의 보편적 평화가 보장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한 최초의 근대철학자는 칸트였다. 1795년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 쓴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에서 칸트는 전쟁 상태의 일시적 멈춤이 아니라 지상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구축

하기 위한 이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평화론은 여섯개의 예비조항, 세계의 확정조항과 두개의 부가조항 그리고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칼 야스퍼스는 예비조항 가운데 1, 5, 6번을 시간적 제약이 없이 항구적인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봤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래에 전쟁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은밀히 유보하고 있는 국가와의 평화조약은 어떠한 것도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경우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협정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고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법과 정부에 무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없기 때문이며 이는 그 국가의 내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모두 국가 내부의 질환이므로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간섭은 자율권에 대한 침해일 것이기 때문이다.

6) 전쟁중이라도 미래의 평화에 대한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적의를 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암살이나 독살, 항복조약의 파기 그리고 적대 국가 내의 반동선동 등이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만 평화가 가능할 것이고 일방적인 승리만 있다면 결국 미래의 평화는 인류의 무덤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비조항에 기초해 칸트는 세계의 조항을 확정한다.

1) 각 국가의 시민헌법은 공화적이어야 한다.

이는 그 사회의 시민이 지니는 자유권과 법 아래의 귀속성 그리고 평등의 법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제법은 자유국가들간의 연방에 의거해야 한다.

이는 국제연맹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인데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로 넘어온 것처럼 국가도 외적 법칙 하에 있지 않을 경우 자연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법칙에 의해 제한된다.

여기서 우호한 한 외국인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밟았을 때 단지 그 이유로 적대자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이산가족이 있는 우리에게 좀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 칸트의 주장은 정치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 권리라는 본질적 가치까지 통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 신념을 드러낸 것이다.

### 인간 이성과 선의지에 대한 무한한 낙관론

이상 영구평화론에 드러난 기본적 이념에서 우리는 칸트의 정치론이 그의 도덕론과 이성적 인간

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속에 대한 신뢰성,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그의 예비조항에서 엿보인다. 다음은 칸트의 말이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발전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타인에 대한 선

의지를 기본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비도덕적 유혹들은 덕이라는 윤리적 행위의 연습을 통해 극복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인간은 좀더 이성적인, 따라서 더욱 도덕적인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국가도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인간의 평화에 대한, 즉 바람직한 공존에 대한 열망은 각 국가가 지니는, 도덕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증진하며 결국 이념적 진보를 넘어 실질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칸트의 평화에 대한 믿음은 인류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와 인간의 도덕적 발달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허치슨이나 샤프츠베리 등이 봤던, 개인의 타자에 대한 공감미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그런 개인의 집합인 국가 간의 평화가 가능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정할 만한 일이다. 사실 오늘날 국제연합체 등을 통해 칸트를 비롯한 평화론자들의 이념은 구현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정치의 흐름을 볼 때 그런 낙관주의는 현실적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다. 우울한 말이지만 오히려 흡스나 만데빌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기적 존재의 집합인 국가이기에 자국 이기주의에 물들어 폐쇄적인 민족주의 성격을 표출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 있다.

칸트의 평화론에 대한 논의도 그 후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에 부딪힌다. 하나는 칸트의 이상을 긍정하는 피히테나 장 폴 등으로 1797년 펴낸 《민족과 세계시민법의 기초(Grundriss des Voelker und Weltbuengerrechts)》에서 피히테는 칸트의 사상을 옹호하고 민족연합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장 폴도 《독일을 향한 평화의 설교(Friedenspredigt an Deutschland)》를 통해 칸트를 지지한다. 하지만 칸트를 거부했던 헤겔이나 전쟁을 찬양하며 중부유럽 국가들의 민족주의를 부추긴 낭만주의적 방향도 있었다.

사실 칸트도 평화에 대한 인간의 이념이 이상적일 수 있음을 인식한 것 같다. 《영구 평화론》을 쓴 해 10월 15일 젊은 키체메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평화론을 “나의 몽상곡”이라 칭하고 있다.

칸트의 몽상은 그래도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근거 있는 개연적 몽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평화에 대한 우리의 몽상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

김봉규씨는 서강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필른대 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 철학과에서 강의한다. 주요 논문으로 <칸트의 초기작품들에 있어서의 행복과 행복의 가치성 연구> <행복, 칸트 윤리학 연구> 등이 있다.